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28.(월) 15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28.(월)	담당부서	반도체디스플레이과
담당과장	박찬기 과장(044-203-4270)	담 당 자	차세운 서기관(044-203-4271)

장관, 러-우크라 사태 관련 산업현장 점검

-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,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-

□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(이하 "산업부") 장관은 2.28(월) 충북 보은에 위치한 **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**인 티이엠씨(TEMC)사를 방문, **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**가 **원자재 수급** 등 **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**을 점검하였음

< 산업부장관 현장방문 개요 >

ㅇ일시 : 2.28(월) 15:00
ㅇ장소 : 티이엠씨(TEMC)사 (반도체제조용 특수가스 업체, 충북 보은 소재)
ㅇ참석자 : (산업부) 문승욱 장관, 소재융합산업정책관 (티이엠씨(TEMC)) 유원양 대표
ㅇ논의내용 : 러-우크라 사태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업계의 대응현황
반도체 제조용 희귀가스(네온·크립톤·제논(크세논) 등) 수급 상황

□ 산업부는 러-우크라발(發) 손해 우려가 대두된 시점부터, 양국에 대한 **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**들의 공급망 및 수급상황을 집중 점검해 왔으며,

○ 특히 금번에는 **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**인 네온·크립톤·제논(크세논)의 **수급동향을 논의**하기 위해, 동 가스를 **전문적으로 정제·가공**하여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**티이엠씨(TEMC)사**를 방문하였음

* `21년 가스별 수입액 중 우크라이나·러시아産 비중
네온 28% (우크라이나23+러시아5), 크립톤 48% (우31+러17), 제논(크세논) 49% (우18+러31)

* 네온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공정에, 크립톤·제논(크세논)은 식각공정에 주로 사용

□ 문승욱 장관은 그간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, 러-우크라 사태가 네온 등 **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**인 상황이라 언급하고,

○ 기업들은 **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확대(평소의 약 3~4배)**하는 한편,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**기민하게 대응**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

□ **티이엠씨(TEMC)** 유원양 대표는 **포스코와 협력**하여 올해 초 네온 가스의 **국산화 설비·기술 개발에 성공**하였으며, **올해 하반기**부터는 **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**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

* 포스코와 티이엠씨(TEMC)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소공장 내 공기분리장치를 활용, 네온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개발에 `22.1월 성공 (포스코는 국내산 네온 가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, 국내 수요의 약 16% 가량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)

○ 아울러, **크립톤·제논(크세논)** 가스도 **정부 연구개**발을 통해 포스코와 함께 **국산화 기술개발**을 **진행** 중에 있다고 밝혔음

□ 문승욱 장관은 각종 손해 우려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**핵심 소재**의 **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**함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을 **적극 지원해나갈 계획**이라 언급하였음

* 소재·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(`22년 8410억원), 전략핵심소재자립화(`22년 1842억원) 등 지원 중

□ 산업부는 앞으로도 **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**, 러-우크라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**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**

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차세운 서기관(☎ 044-203-42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